

‘아이를 사랑한다’ 구요?



홍은희 / 중앙일보 논설위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다. 한 소설가가 꽤 오래 된 일이라며 털어놓은 에피소드다. 네 살, 두 살의 두 꼬마를 데리고 집에서 꽤 먼 거리에 있는 동사무소로 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에 잠깐 들렀다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나서 보니 방금 전까지 곁에 있던 큰 애가 그새 깜짝 같이 사라져 버렸단다. 골목 안을 헤매던 끝에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시야를 크게, 멀리하고 사방을 둘러보니 아이가 어떤 여인의 뒤꽂무니를 열심히 따라가는데 보이더라. 유괴범에게 납치된다고 여긴 그는 아이이름을 목청껏 부르며 이를 좇아갔다.

소설가의 반성은 이 대목에서 시작된다. “아이는 잔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그 여인을 제 엄마라 생각하고 부지런히 따라 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가서서 보니 여인의 바지 색깔이 나랑 똑같았다. 역시 그렇다. 네 살배기 아이의 눈높이란... 딱 어른의 바짓가랑이 정도일테니까.”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 아들이 유아원에 다닐 때였다. 깜박 잊고 온 자료가 생각나 부랴부랴 집에 들렀다가 회사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아이도 미술학원에 갈 참이니 엄마와 함께 가겠다며 나섰다. 길어야 5분 거리의 학원에 가는 동안 아들은 열심히 친구 얘기를 떠들며였다. 건성 대답을 하던 내가 비로소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은 학원에 거의 다달아서였다. ‘애가 왜 이러지?’ 생각하면서 아이를 내려다 본 순간, 아뵘새! 최대한 보폭을 넓혀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나와 보조를 맞추느라 아

이는 그 짧은 다리로 뛰다시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날의 경험은 두고두고 내가 아이의 입장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반성하게 만들었다.

가끔 우리는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있다고 확신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헤아려보면 자신이 만든 틀에 억지로 끼워 넣거나 자신의 시각에 맞춰 마음대로 상대방을 편집해 해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자신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거나 힘이 약한 존재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심리학자들은 어른이 아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먼저 몸을 낮추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대화하라고 말한다. 자신의 틀을 먼저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어버이날, 이날 하루만이라도 어버이를 찾아보려는 호도 차량들로 울해도 서울 전지역이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겪었다. 음식점마다 인파가 몰리는 바람에 ‘급조된 호도죽’ 들은 낭패를 보았단다. 그래서 요즘 1년 3백65일이 어린이날이니 차라리 어버이날을 휴일로 정하지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휴일의 자리를 어버이날에 물려주는 것도 좋고, 1년 내내 아이의 날인 것도 좋다. 하지만 먼저 과연 어른들의 아이사랑의 속내가 진짜 아이의 입장에서 배풀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오히려 어른들이 왕처럼 떠받들고 있는 아이조차 이런 왕은 싫다고 속으로 외치고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PPR